



즉시 배포용: 2017년 2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 뉴욕 시민들의 사명 --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드립니다**

최근에 북행하는 B 열차를 탄 승객이 한 열차 차량에서 미국 국기 가운데에 녹색 마커 펜으로 나치 표시를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치 표시는 바로 검은색 마커 펜으로 네모 모양으로 그려졌고 “사랑(L-O-V-E)”이라는 글자로 채워졌습니다. 낙서의 특성상, 이 사건은 아마 자연스럽게 발생한 편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뉴욕 시민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과 세계에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진은 [여기](#), **Cuomo** 주지사가 트위터에 남긴 메시지는 [여기](#).

**뉴욕의 약속 (New York Promise): 증오 범죄와의 전쟁 및 관용 장려**

2017년 뉴욕의 약속 의제(New York Promise Agenda)의 한 부분으로 주지사는 주 전역에 편견과 차별로 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저지 업무를 수행하는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 대책팀에는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과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담당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증오 범죄를 조사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관용하도록 돕고,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증진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Dolan 추기경이 이끄는 새로운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